WP "부시, 북·이란·이라크서 위기 봉착"

'수렁' 빠진 대외정책, 불량국가들에 도전 허용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5년여 전 '악의 축'으로 지목했던 북한과 이란, 이라크 등 3국 모두에서 '위기 국면(crisis point)'에 직면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이 10일 보도했다.

신문은 북한은 이제 첫 핵실험을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이란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 요구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라크는 미국과의 전쟁 이후 3년 반 만에 내전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것으로 보이며, 위험을 증폭시키고 부시 대통령과 보좌진들로 하여금 어려운 계산을 하게 만들고 있다고 미 관리와 전문가들은 밝혔다.

이들 세 문제는 서로에게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점차 악화되는 이라크 상황은 미국의 외교적 신뢰를 훼손하고 미 행정부의 군사적 선택폭을 제한했으며, 일명 '불량국가들'에게 심각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게 됐다는 평가이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자국 핵개발 계획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외교적 낙진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고문인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이란은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반응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라며 "유엔이 만일 강력하게 대응할 수 없다면 이란은 그것을 처벌을 피해 행동할 수 있는 명백한 길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여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북한은 (앞서 핵실험을 강행한) 파키스탄을 지켜봤고 세계가 파키스탄에 대해 강도 높고 장기간에 걸친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란도 분명 북한이 약한 제재를 받으면 이에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中 GDP 세계 4위 1인당 GDP는 110위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10년에 2천400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고위 관리가 9일 밝혔다.

장샤오치앙(張曉强) NDRC 부주임은 선양(瀋陽)에서 열린 14차 세계생산력대회(WPC)에서 현재 환율기준으로 2010년에는 중국의 GDP 규모가 3조2천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중국의 GDP는 2조2천억달러를 넘어서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했지만 1인당 GDP는 1천703달러로 세계 110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체 GDP와 1인당 GDP간 격차 외에도 중국 경제는 비효율과 낮은 수준의 기술생산성, 저 부가가치 등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의 GDP 규모는 세계 GDP의 5%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이 소비하고 있는 원유, 철광석,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원재료는 세계 소비량의 25-40%에 이르고 있다.

중국 기업 가운데 핵심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기업은 1만개중 3개에 불과하며 99%는 특허가 없고 60%는 아예 자사의 상표조차 갖고 있지 않다. /상하이=연합뉴스

북한 병사의 두 모습 북한 병사 한 명(왼쪽 사진 가운데)이 10일 단둥 근처 중국과 북한 경계지점 샛강 가운데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음식물 가방을 전달받고 있다. 같은 날 북한 신의주의 압록강 둑에서 반대편인 중국 단둥쪽을 향해 사진을 찍지 못하도록 돌을 던지는 북한 병사. (오른쪽 사진) /AP·로이터=연합뉴스

"北 체류 2,195명, 안전상 문제 없어"

통일부, 외통위 제출 자료

10일 현재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모두 2천195명이며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통일부는 파악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오전 8시 현재 개성에 625명, 금강산 1천448명, 평양 등 기타지역에 122명 등 모두 2천195명이 북한에 체류 중"이라고 보고했다.

우리측 선박 13척과 차량 805대도 북측 지역에 잔류해 있다고 통일부는 덧붙였다.

통일부는 "우리측 인원은 별다른 동요 없이 있으며 안전상 문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북한 내부나 휴전선상의 북한군도 특이동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우리측 인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유엔총장 공식 지명된 반기문 장관

"기뻐해야 할 순간에 무거운 마음"

북핵 해결 위해 사무총장 권한 최대 활용

차기 유엔 사무총장 지명자로 결정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9일 "국제사회의 일치된 경고를 무시하고 감행된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영광되고 기뻐야할 순간에 무거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반 사무총장 지명자는 이날 밤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안보리의 사무총장 지명 결정에 대한 소감을 이 같이 밝힌 뒤 "앞으로 북핵 불용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관련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의하에 북한이 모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엄중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의 이번 행위는 작년 9·19 공동성명의 의무를 저버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도발적 행위일 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무효화시키는 것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가 현재 북핵문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적극 대처토록 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추가적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특별히 말할 만한 정보는 없지만 앞으로 있을 여러 상황에 대비, 관련국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 지명자는 "한국 외교장관으로서 뿐 아니라 유엔 사무총장 후보 지명자로서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국제평화.안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는 계기를 삼고자 한다"며 "앞으로 사무총장에 임명되면 유엔 헌장상의 책무를 바탕으로 북핵문제는 물론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에 기여토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그는 또 "모든 면에 있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솔선수범해 불신과 이견을 조화롭게 이끌고 조정하는 조정자와 가교의 역할을 하는 사무총장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사무총장으로서 북핵 및 이란핵 문제를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는 질문에 반 지명자는 "기존에 있는 두 문제의 해결 매커니즘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정.촉진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사무총장의 역할이 필요할 경우에는 주어진 권능과 책무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이니셔티브를 취하겠다" 고 말했다. /연합뉴스

반기문 유엔 총장 13일 최종 추인

안보리, 만장일치 후보 추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내년 1월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유엔 총회가 당초 예정보다 빠른 오는 13일(뉴욕 현지시각) 개최될 예정이라고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10일 전했다.

당초 유엔 총회는 뉴욕시간 16일께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었다.

반 장관은 13일 총회에서 회원국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사무총장 임명자 자격을 획득하면 현장에서 수락연설을 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시간으로 9일 밤 열린 안보리의 정식투표에서 반 장관이 사무총장 지명자가 됨에 따라 안보리는 반 장관을 유엔 총회에 추천할 사무총장 단수 후보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해 유엔 총회로 보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北핵실험' 3세계 반응

이란 "美 위협·굴욕에 대한 당연한 대응" 베네수엘라·칠레 "세계 평화·안정 위협"

세계 각국이 북한 핵실험 강행을 한 목소리로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제3세계 국가 등은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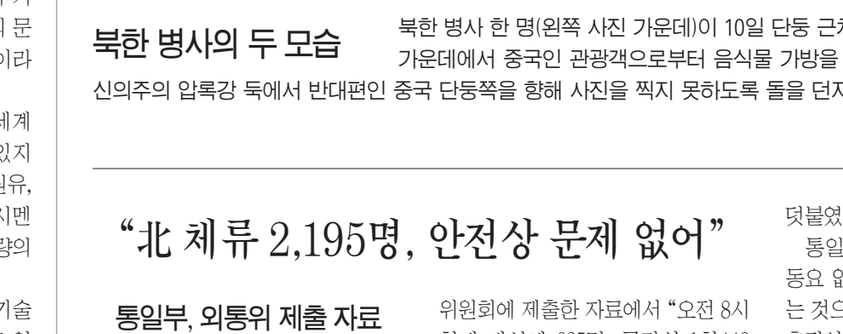
쿠바 정부는 9일 북한 핵실험 발표와 관련해 아무런 논평을 내지 않고 있으며, 국영언론 만이 평양발로 별도의 견해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핵실험 사실만 보도했다.

이란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이 "미국이 위협과 굴욕을 가하는데 대한 반응"이라고 분석하면서 미국을 비판했다.

아무르 무사 아랍연맹 사무총장은 "세계는 더 많은 핵실험을 필요로 하지 않고, 더 많은 긴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서 "상황을 억제하기 위해 북핵 문제와 관련한 정치적 협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반해 평양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와 칠레 정부는 "환경과 생명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기 때문에 모든 핵무기 실험을 비난한다", "핵실험 강행은 지역과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비판했다.

/런던·워싱턴AP·AFP=연합뉴스

광주 전남 이용기능장 1호
가발 시술 12년 경력의 최고실력자 이수채원장 직접시술관리

심는가발 탄생!!
심는 가발이란 인체 두피에서 모발이 한가닥 한가닥 자란 것처럼 보이며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 합니다. (올백도 OK)따라서 가발머리도 스포츠형으로 맞춤이 가능합니다
• 1997년 CAT 물란서 세계선수권대회 대상수상에 빛나는 전국 최고의 실력자 이수채원장이 직접 시술합니다
• 1:1 원장직접 개별상담실 운영
• 타사제품과 비교할수 없는 전국 최저가 시술
• 타사제품 고가보상판매 실시
• 타사제품에 만족하지 못하신 분은 상담해 드립니다
• 30년 경력인 이용사가 직접착용시술 컷트·관리까지 해드립니다
• 시내·외 출장가능 / 신용카드 환영
• 올백스타일, 취침, 수영, 사우나, 축구, 헬스, 테니스 어떤 운동에도 장애가 될수 없습니다
최상품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전남지역 지점모집
목포, 순천, 여수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최저가 30만원~※여성무모(無毛)전화 한통화로OK!
※회상 두피함몰등 가발의 모든것 해결함
※타사 제품도 신기술로 보완 시술 가능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무료전화 080-323-5858
E-mail:daesangabal.co.kr
大 대산남녀프리모가발맞춤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국제호텔 뒤(보훈병원 입구)
대표전화 : 062-672-4622~3, 673-5858
원장 이 수 채 011-607-5330
구 보훈병원 남구청 대산가발 국제호텔

서울본원 1차 최종합격생 123명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합격의 전당 광주 김재규경찰학원이 노량진의 합격 신화를 이어갑니다
1일·15일 개강 (수시접수)
◉6개월회원제 / 1년 회원제
오전이론+저녁이론강의+오후실전문제풀이+기초영어 모두 수강 가능
◉2개월 종합반 오전이론+저녁이론 강의+기초영어 수강
• 1개월 무료 동영상제공(회원제) • 전용자습실 사용 가능
• 정독서실, 고시원 할인 혜택 • 사물함 무료사용 가능
• 매주 토요일 기초영어특강 수강 • 심화반 선별 맞춤 수강
• 매월 실전모의고사 실시(OMR카드 성적처리-개인성적표 제공)
★ 차별화 된 전문 교수진

경찰학개론	형 법	형사소송법
김재규 교수	조태엽 교수	윤경근 교수
수 사	영 어	영 어
오수평 교수	오순아 교수	김지선 교수

광주 김재규경찰학원
Kim Jae Gyu Police Academy
☎062)236-3112 전남여고 후문 앞 www.police3112.net

공무원 야간반 첫진도
공무원 이론반 첫진도 개강 10월9일
★ 행정/세무/교육행정/검찰/교정직 -주/야간반 운영 ★
전통과 합격을 실력있는 강좌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뒤 222-4560

상위권 대학편입 전문 - 김영
호남유일의 의·치의학전문대학원대비강좌
MEET/DEET 대비반 개강
일반, 학사, 사대편입 편입대비 영어 기초반
약대, 한의대편입 생물, 화학, 한문, 한의학
교육대편입대비 - 김윤신 교육학
김영대학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개강:11월1일 ☎227-8088